

#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2016

07  
제348호

만화 <신도시>를 그린 김인엽 씨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스타작가입니다.  
어딜 가나 군포 산본 출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를 만나봅니다.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가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김인엽 씨

## 02 행복한군포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지는 명품공원  
3가지 키워드로 만나는 '초막골생태공원'  
+  
초막골생태공원을 제대로 알기 위해 3가  
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자.



## 08 군포 삼매경

군포시 물놀이장 & 캠핑장 미리 보기  
어렵다면 물놀이와 캠핑 이지 않습니다  
+  
한여름의 짜증과 무더위를 시원스레 날릴  
수 있는 초막골 캠핑장과 물놀이장, 그리  
고 중앙공원 물놀이터를 소개한다.



## 10 반갑습니다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군포 출신 김인엽  
+  
두박하지만 가볍지 않고, 세련되지 않지만  
정체 모를 울림이 있는그림, 김인엽의 그림  
은 그런 느낌이다.



## 16 건강속속

냉방병을 물리치는 따뜻한 보양식  
흑미영양삼계탕  
+  
여름철 냉방병으로 몸이 허하다고 느껴지  
는 이가 있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흑미영양삼계탕으로 몸보신을 해보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명품공원

# 3가지 키워드로 만나는 '초막골생태공원'



약수고대.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뜻이다. 군포시민에게 있어 '초막골생태공원'이 그렇지 않을까?  
14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올 7월, 초막골생태공원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기다림이 길수록 만남은 달콤한 법. 초막골생태공원을 제대로 알기 위해 '3가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자.

글 김은 사진 주효상



초막골생태공원이 14년 만에 시민 곁을 찾아온다. 군포시는 초막골 일대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휴양공원, 생태 체험과 교육이 이뤄지는 도심 속 생태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 군포를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총 610여억원(국비 32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558억원)이 투입된 초막골생태공원은 하천생태원, 야생초화원, 생태관찰원, 잔디광장, 생태연못 등으로 꾸며졌다.

지난 2013년 11월, 공원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첫 삽을 든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준공을 앞둔 초막골생태공원이 개장하면 군포시민의 휴양과 정서함

양을 위한 녹지공간, 도심 속 생태학습의 장이자 전강 지킴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철쭉동산과 아울러 수리산 도립공원까지 연계한 공원 관광벨트가 형성돼 수도권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초막골생태공원은 자연 친화적 생태,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전문가를 포함한 7명의 '자문회의'를 구성해 201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또 시는 초막골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태공원과를 신설, 총 33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초막골생태공원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14년이

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2002년 이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더욱 생태 친화적인 토지이용방안을 구상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꼼꼼히 이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원 면적 확대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조사 시행, 국·도비 확보 등에 의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상하듯 명품생태공원으로 탄생할 초막골생태공원의 진면목을 3가지 키워드로 미리 살펴보자.



초막동천



다랭이논



비지터 센터

**산** 본동 915번지 일원, 56만1,500㎡의 드넓은 공간에 펼쳐진 초막골생태공원은 군포의 자연 생태계를 압축해 놓은 듯하다. 자연의 소중함을 간직한 채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내내 군포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를 조성 콘셉트로 삼았다.

원래 맹꽁이 서식지로 유명했던 이곳은 자연생태를 최대한 살려 동식물의 서식지로 그대로 보존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있던 맹꽁이 못을 대체 서식처로 옮겨 '맹꽁이 습지원을 조성해 맹꽁이가 서식하기에 더욱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조경석을 이용해 2단 폭포를 조성한 '초막동천'에는 수리산을 상징하는 병풍바위와 칼바위 형상을 그대로 연출해 장관을 이룬다. 게다가 숲 복원지역을 '향기숲'으로 명명하고, 기존 수림을 유지하면서 편백나무 250주와 화백나무 250주, 상수리나무와 소나무 등을 함께 심어 산책로를 조성했다.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 있는 녹색공원인 셈이다.

**초** 막골생태공원은 공원 전체에 역사, 문화, 생태 스토리 등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을 도입해 곳곳에 나름의 이야기와 가치를 부여했다. 공원 입구부터 출구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물의 터', '살의 터', '생명의 터'로 구분 지은 뒤 순서대로 '초막으로 돌아가다', '시간을 담다', '물을 그리다', '흙을 만지다', '자연을 새기다', '바람을 느끼다', '수리로 나오다'라는 테마를 정했다.

3단으로 조성된 '다랭이논'에서는 도시농업을 체험해볼 수 있다. 지난 5월 22일에 다랭이논에서 군포 시민 일곱 가족 23명과 청소년 자원봉사자 30명 등 5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모내기 행사를 하기도 했다.

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당시에 가마터가 발견됐는데, 이곳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원 터'로 복원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은 성장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이론 교육과 교통안전 중요성 확산 역할을 담당한다.

**사** 람은 자연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초막골생태공원은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생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관리사무소 겸 방문객 안내를 맡은 '비지터 센터'는 에너지 절감 건축 공법인 패시브(Passive) 공법을 사용해 지었다. 패시브 공법이란 태양열 등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 쓰는 액티브 공법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말한다. 때문에 난방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한편 자가발전 놀이시설로 설치된 '현수식 모노레일'은 스스로 발전하여 즐기는 친환경 놀이시설로 탑승부 폐달의 회전을 통해 모터를 구동하고, 탑승부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수변데크가 있는 '물새연못'에는 새가 날아드는 조도와 나무희대를 설치하고, 실개천이 흐르는 넓은 잔디밭인 '초록마당'은 겨울철에 자연 경사를 이용한 가변 눈썰매장으로 꾸며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동네를 바꾸는 사업 구상해보세요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7월 말까지 공모



“생각하고 행동하면 동네가 바뀝니다.”

지방자치 예산사업을 시민이 직접 구상해 만들 기회의 문이 열려있다.

군포시가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를 6월 1일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는 것이다.

거주지 환경을 잘 아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각종 사업,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의 의견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소동행정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추구하고 위함이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에는 군포시민 뿐만 아니라 군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군포에 사업체를 둔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평소 생각하던 동네 발전 아이디어가 있거나 희망

사업이 있는 이들은 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방)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시 기획감사실 또는 사업 희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 기획감사실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현승식 기획감사실장은 “가족·이웃과 함께 사는 동네의 환경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군포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에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와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시행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사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감사실 390-0277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적용 방식(현재)

적용 세대	배출 방법			비고
	<b>RFD차량계량(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고지서 방식)</b>			
공동주택 다세대				현재
	RFD개별계량(카드결제)	종량제 칩방식	음식물종량제봉투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상가				변경 후
	-	(3, 5, 20리터)	(1, 2, 5, 10, 20리터)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의 RFD차량계량방식으로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이 개인정보법과 차량계량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음식물종량제봉투 또는 칩방식 종량제로 변경 시행될 계획이다(시행시기 : 2016년 하반기 예정). 기존의 음식물수거용기(120리터)는 음식물종량제봉투 수집용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종량제 변경 시행과 관련해 기타 의견이 있는 시민은 7월 20일까지 청소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청소행정과 390-0253

### 한 눈에 보는 군포

#### 건전지·형광등 재활용 협력 강화

군포시가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가정과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이 오르는 폐건지와 폐형광등을 수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각 동 주민센터와 6개 공공도서관에 재활용이 가능한 건전지와 형광등 폐기를 수거함을 설치·정비했으며, 통장들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수거함이 없는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장려·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학교 등에서 재활용 관련 교육을 요청하면, 군포시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해 재활용품 활용 소품 만들기 체험 및 시청각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단지 내 별도 수거함에 폐건지와 폐형광등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재활용 비율이 낮은 종이팩의 경우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화장지와 교환해주는 등 분리배출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소행정과 390-0453

#### 공원 내 애완동물 산책 예절 지도·계도 나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이하 군포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내 당정근린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줄 및 배변 봉투 지참 여부 등을 확인해 올바른 애완동물 산책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애견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도심 내 모든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예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한편 군포 행정복지센터는 공원에서의 이물질 무단 방지를 위해 7월부터 애견과의 산책 예절 지키기에 대한 지도·계도를 붙여주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안전환경과 390-3641

#### 다문화가족의 지역 편입 더 편하게

군포시가 다문화가족의 전입 및 체류지 변경 신고간소화를 시행했다.

시는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 주민센터에서 내국인 전입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신청을 받아 시청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따른 이번 조치로 시는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 민원 처리 시간이 절약되고,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한하며 외국인 단독 및 외국인 세대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민원봉사과 390-0136

##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쳐

6월 1일부터 17일간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처리



지난 6월 1일 개최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2일부터 1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행)가 운영돼 각 실과소,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여러 문제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진)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

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 실태와 적정성을 확인·심의했다. 마지막으로 16일 개최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마숙)는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 2건을 수정 의결하고, '군포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시행하며 정례회 안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 Interview

[열린 의정]

#### 제7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의장

## 앞으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 김동별 의원



#### Q. 전반기의장 임기 종료에 대한 소감은?

A. 의장에 취임할 당시 약속드린 것처럼 희망과 믿음을 주는 생활 의정을 실천하는 군포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소리를 모두 들으며 어떤 일에도 상식과 원칙을 지켜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덕분에 군포시의회 역사상 큰 사건사고 없이 가장 무난한 전반기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Q. 7대 군포시의회원 중 유일하신 3선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A. 초선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민원을 해결했을 때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중간에 화단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50m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인근 거주자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일상이었죠. 그래서 화단 가운데를 뚫고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들어가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시민과 시청의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시의원 본연의 역할이라고 각인한 일이었습니다.

#### Q. 지난 2년간의 시의회 활약상이 궁금합니다.

A. 의원 발의를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출산 여성을 위한 '군포시 모유 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군포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국립한국문화관 유치를 위해 '국립문화관 군포시 건립 유치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문체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하며, 군포시 문화발전을 희망하는 29만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 Q. 의장직을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년 동안 의장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후반기에는 현장을 자주 찾아 시민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생각입니다. 남은 2년 동안 생활 현장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듣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해서 새로운 군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시의회 단신

## 청사 로비에서 다양한 전시회 열려

군포시의회 1층 로비에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군포수채화협회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진행된다. 또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화인아트 작가회 주관의 정기 전시회가 시의회 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동별 전반기 의장은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들과 문화예술로 더 가까워지고, 항상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 발전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층 로비를 전시장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고 있다. 또 1층 브리핑룸과 사랑채, 2층 문화강화실도 개방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회의나 강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 로비에서 개최된 전시회는 10회에 달하며, 군포의 풍경을 담은 사진 등 384점의 각종 작품이 전시된 바 있다.

전시장으로 꾸며진 시의회 1~2층 로비를 무료로 대관하길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회 사무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회사무과 390-8713

## 역대 의장단과 시의회 발전 논의

군포시의회는 6월 1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역대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지향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활발한 생활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원들의 바람직한 역할, 군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역대 의장단으로부터 실질적 조언을 들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늘날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역대 의장단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선후배 의원들이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의회사무과 390-8713





# 교과서 밖에서 내 꿈을 발견하다

2016 군포시 '꿈의학교' 개교



지난 6월 3일을 기점으로 군포시 '꿈의학교'가 모두 개교했다. 학교가 아닌 지역공동체에서, 교과서가 아닌 현장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해보는 '꿈의학교'의 아심 한 시작은 군포시 청소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글·사진 편집실

## 멋진 선프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요리 교실

6월 10일 오후, 군포시평생학습원 조리실에는 환색 가운을 입은 학생들로 북적인다. TV에서만 보던 멋진 조리복을 입고 조리모를 걸친 30여 명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선생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흡사 예비요리사를 연상케 한다. 군포시 13군데 '꿈의학교' 중 마지막으로 개교한 '지담(자연 담은) 쿠킹 꿈의학교'의 수업 풍경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꿈의학교'이기에 지난 6월 3일 개교 이후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요리실습을 해보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메뉴는 '브런치' 만들기. 가볍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카나페(Canape)를 만들어보는 게 오늘의 미션이다. 교실에서 교과서와 문제집을 붙잡고 있던 학생들의 손에 음식 재료와 요리도구들이 들려 있는 모습이 생경할 법도 하지만, 학생들은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설명을 경청한다.

'지담 쿠킹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사)자연생태교육연구소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랜 준비 끝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자연생태교육연구소 장병연 이사는 "올 12월까지 27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만큼 학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며 "불(火)과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 수업이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전하는 것이 '꿈의학교'의 취지인 만큼 '지담 쿠킹 꿈의학교'는 본 수업 이외에도 대기업에 다니는 선배를 초청해 요리 강좌를 진행하고, 종강 즈음에는 부모님을 초대해 그동안 배운 요리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 쌓을 수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경기 꿈의학교'가 6월 현재 경기도 소재 135개 꿈의학교 중 115교(85%)의 개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15년에도 다양한 형태의 꿈의학교가 진행됐는데, 계절형 꿈의학교(5교), 방과후 꿈의학교(7교), 혼합형 꿈의학교(39교), 심표형 꿈의학교(25교), 토요일 꿈의학교(67교) 등 총 143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경기 혁신교육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 역시 꿈의학교의 주요 성과로 ▲학교 교육과정을 심화하고 공교육을 보완했다는 점 ▲진로 탐색을 위한 공적 체험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과정

에서 지역 공동체 복원의 계기를 만든 점 등을 꼽았다.

'경기 꿈의학교'의 수업 분야는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에 맞춰 무척 다양하다. 마구나 재료비를 포함한 교육비 전액이 무료라 학생들은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실습과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꿈의학교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스포츠, 요리, 음악(경기도교육청 2015 학생 꿈 조사)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군포 꿈의학교는 '꿈의 레스토랑' '복합문화예술 학교' '별빛 축구교실' 등 총 3개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꿈을 직접 실현해 나가며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예로 군포 당동청소년문화의 집은 '군포 요리·축구·문화예술 꿈의학교'를 운영 중이다. 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직접 꿈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도전과 실패, 성공의 경험들이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진행되는 '경기 꿈의학교'를 통해 군포시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얻어 가길 바래본다.

## '경기 꿈의학교'란?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참여하되,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학교 밖 학교

## 군포시 2016 '꿈의학교' 현황

- 국악오케스트라 꿈의학교
- 수리산청소년생태 꿈의학교
- 함께 찾아가는 진로 꿈의학교
- 자연풍에 크는 아이들 꿈의학교
- 아울림 꿈의학교
- 지담쿠킹 꿈의학교
- 음악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Moby 꿈의학교
- 레디액션1318 꿈의학교
- 요리·축구·문화예술 꿈의학교
- 꿈의 개그학교
- 내 생애 첫 무대 꿈의학교
-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꿈의학교
- 랩 스텔 꿈의학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390-1122



6월 7일부터 34일간... 41개 항목의 경제총조사 시행

# 군포, 18,888개 기업 전수 조사

군포시가 6월 7일부터 지역 내 사업체 1만8천888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과 함께 '2016년 경제총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 요원 78명을 투입해 종사자 1인 이상인 기업의 각종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장 방문 또는 인터넷 조사 참여를 유도해 총 41개 항목의 각종 지표를 확인한다.

현승식 기획감사실장은 "조사원이 기업을 방문했을 때 최대한 사실 그대로 조사에 응해줘야 시가 지역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며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시점에 동일된 조사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조사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 390-0357



### 여성만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일시 7월 5일(화) 오후 2시~오후 4시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앞 통로  
참가규모 7월 4일~7월 29일(4주간)  
자격 구인업체 - 군포시 및 인근 지역 10여개 기업  
※ 참여 현황은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  
구직자 - 취업 희망 여성 누구나  
진행내용 메인행사 - 기업체 현장 채용연접, 일자리상담  
부대행사 -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참여방법 이력서, 사진, 신분증 지참 행사당일 현장방문  
주최 군포시

군포일자리센터 390-0613

### '2016 군포독서대전' 기간 길거리 책방 운영 출판사 공개 모집

군포시는 올해 가을 열릴 '2016 책나라군포 독서대전' 기간 동안에 길거리 책방을 운영할 출판사와 관련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2016 책나라군포 독서대전'이 진행될 동안에는 공모에 참여해 선정 통보를 받은 업체만 길거리 책방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될 길거리 책방 운영 업체에 야외 부스, 테이블과 의자 등을 제공해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7월 1일까지 이메일(majaeok@korea.kr)로 하면 되며, 더 상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를 참조하거나 책방정책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책방정책과 390-0903

### 군포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대학생 멘토단 모집

(재)군포문화재단 군포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군포진로센터)는 7월 8일까지 '멘토와 함께하는 학과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

군포진로센터의 대학생 멘토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군포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과를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하게 되며, 군포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명의의 위촉장과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이 이뤄진다. 대학생 멘토단은 7월과 8월에 걸쳐 사전교육을 수료한 뒤 9월부터 각급 학교를 찾아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다.

군포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90-1426-9

## 군포일자리센터 7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390-0613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케이엔유통	군포시 곡관로108,202호(산본동)	전자상거래	일반영업, 고객관리 2명	평일 09:00~18:00	월급 150만원	031-342-5022
(주)베스콘	군포시 고산로 166, 104-1001 (당정동, SK벤처울)	전자부품커넥터제조, 도매수출입	전기·전자장비 기술영업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800만원	031-455-7600
퓨전텍	군포시 엘에스로13, 신일아이티유도 705호(당정동)	통신부품 도매업	무역사무원 채용 (중국어) 1명	평일 09:00~18:00	연봉 1,900만원	031-392-8906
(주)대성정밀	군포시 산본로 63, 신한에자공단 5-2(당정동)	자동차 엠프 및 전자 부품 몰드 프레임	머시닝센터(MCT) 조직원 1명	주 6일 08:30~19:00	월급 350만원	031-453-3834
(주)상우시스템	군포시 엘에스로 13, 신일아이티유도 603호(당정동)	첨단 영상 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턴트 3명	평일 09:00~18:00	연봉 2,000만원	010-5632-5600
한국광성전자(주)	군포시 공단로 356-3(산본동)	전자부품 제조업	기계설비 운영자 3명	2교대-주간(09:00~18:00 (잔업시 20:30까지) 야간21:00~06:00)	시급 6,030원	031-687-8559
오조옵틱스	군포시 용호1로 56, 대림프라자 204호(당동)	콘택트렌즈 생산 및 도매	사무보조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30만원 이상	070-7006-5216
(주)서광아이티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당정동)	통신공사	정보통신 광접속 공사 (기술자1명,보조1명)	평일 09:00~18:00	연봉 2,000 만원	031-398-2801
(주)광명엔지니어링	군포시 엘에스로 13, 신일아이티유도 1009호(당정동)	자동제어 패널, PLC 제어	PLC 시험 운전 제어 1명	평일 09:00~18:00	연봉 3,500만원	031-452-8204
서영신소재(주)	군포시 당정로 60번안길 5(당정동)	전기절연자재 도·소매업	단순 포장 검사 직원 1명	주 6일 08:30~18:00	월급 150만원	031-427-0081



군포시 물놀이장 & 캠핑장 미리 보기  
여름이면 물놀이와 캠핑이지 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과 뜨겁게 달궈진 대지로 잠 못 드는 요즘, 차가운 물가와 시원한 개울을 향해 무작정 떠나고 싶은 욕구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하지만 군포에서라면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무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곳이 많다.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과 캠핑장이 바로 그곳. 한여름의 짜증과 무더위를 시원스레 날릴 수 있는 물놀이장과 캠핑장을 소개한다.

글·사진 편집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초막골 물놀이장과 캠핑장

초막골 캠핑장이 3년 만에 시민 곁에 돌아온다. 2013년 여름철 개장 이후 생태공원 조성 공사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던 초막골 캠핑장이 7월 5일 정식 개장한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마친 초막골 캠핑장은 총 86면(글램핑 17면, 일반 69면) 규모



로, 차량 184대(대형 5대, 장애인 10대, 중소형 16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특히 캠핑장 인근에 조성될 야외 물놀이장은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일반풀·유아풀·영아풀을 갖춰 가족 단위 물놀이에 제격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군포시민에게는 30%의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금 시민 품으로 돌아온 초막



골 캠핑장과 물놀이장에서 몸과 마음에 힐링을 얻고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태공원과 390-4052

초막골 캠핑장&물놀이장 사용료

※주차료 별도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성수기 (7.1-8.31)		비수기 (9.1-다음 해 6.30)			
			일반	군포시민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캠핑장	글램핑(고급형)	개소/1박	150,000	105,000	120,000	84,000	100,000	70,000
	글램핑(일반형)	개소/1박	100,000	70,000	80,000	56,000	70,000	49,000
	야영장 (6m×7m)	면/1박	25,000	17,500	25,000	17,500	20,000	14,000
		면/1일 (피크닉)	15,000	10,500	15,000	10,500	10,000	7,000
여름 야외 물놀이장	일반	1명	5,000	3,500	-	-	-	-
	캠핑장 이용자	1명	2,000	2,000	-	-	-	-

중앙공원 물놀이터에서  
더위를 씻어요

중앙공원(광정로 96 일원) 물놀이터가 초등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된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2만4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해 행복한 물놀이를 즐긴 중앙공원 물놀이터는 7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되며, 물놀이 겸용 조합놀이대, 워터드럼, 워터터널, 티핑버켓, 기린벤치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군포시는 여름방학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야외 물놀이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질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군포소방서와 협조해 긴급출동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중앙공원 물놀이터에서 더위를 잊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해보자.

생태공원과 390-4058

배려 없는 흡연은 이제 그만!

## 담배 연기 없는 청정지역 군포시 금연아파트

날이 더워지면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흡연이 층간 소음 못지않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 2월 국회에서 '공동주택 단지 금연구역 지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군포는 이보다 앞선 2012년 5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4년부터 금연아파트를 지정·고시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사진 김은



### 공동구역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

담배 청정지역을 원하는 군포시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지난 5월 11일 부곡동 삼성마을 4단지를 지역 내 10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입주세대 5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찬성해야 지정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4년 8월 당동의 정진아파트를 첫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시에 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계단과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고시된다. 때문에 20여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안양관 산본보건지소장은 "다수의 입주민이 희망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이전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며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금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지소는 금연아파트 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신청을 받아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이동 금연클리닉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입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본보건지소로 문의(390-8831)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군포시 금연아파트 1호, 정진아파트

당동에 위치한 정진아파트는 군포시 최초의 금연아파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1987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1개동 40세대, 100여명 주민들의 보금자리이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지난 세월 동안 이웃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왔기에 입주자 대표인 김지원 씨에게 정진아파트는 무척 소중한 곳이다.

"입주를 시작한 해에 이곳에 왔으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정진아파트입니다."

김지원 씨가 금연아파트를 신청한 것은 군포시에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4년 상반기다. 작고 아담한 아파트라 그간 별 탈 없이 지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입주민들 사이에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하나둘 제기되기 시작했다. 화장실을 통해 아래층의 담배 연기가 올라오거나 비란다에서 버린 담배꽂이가 1층 화단에 수북이 쌓이는 등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과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입주자 대표로서 그녀는 반상회 등을 통해 금연을 당부하기도 하고, 흡연자들과 마주칠 때마다 설득도 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시에서 금연아파트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죠. 다행히 입주민들이 제 뜻에 찬성해줘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정진아파트가 군포시의 첫 번째 금연아파트가 된 지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스티커를



각 1층 입구에, 인증서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어요. 처음에는 심드렁하던 흡연자분들도 이제는 알아서 단지 밖에서 흡연을 해주세요."

홍보와 계도가 계속되자 이제는 담배꽂초와 담뱃재, 침 등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그 덕에 쾌적하고 깨끗한 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협조해준 입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금연하면 입냄새가 사라지고, 차아가 하얗고 건강해지고, 음식 맛이 좋아져요. 계단을 오를 때 승차는 증상도 사라지고요. 군포시민 모두 금연하셔서 나 자신은 물론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지원 씨

### 군포시 금연아파트 지정현황

[2016. 6. 30 현재]

연번	아파트 명	시설규모	소재지	시행일
1	정진아파트	1개동/40세대	산본로 216-15	2014-08-18
2	동도센트리움아파트	2개동/216세대	고산로 185번길 36	2014-10-01
3	설악아파트(8단지)	11개동/1,471세대	수리산로 102	2014-10-01
4	한솔솔파크아파트 (1-6단지)	12개동/443세대	고산로185번길 6	2014-10-01
5	삼성마을3단지	7개동/342세대	삼성로59번길 16	2014-12-20
6	삼성마을6단지	8개동/522세대	삼성로41번길(부곡동1204)	2015-02-09
7	백합아파트(엘지)	8개동/536세대	산본로386번길 61	2015-02-09
8	한솔솔파크아파트(7단지)	1개동/60세대	군포시 고산로 185번길 6	2015-03-20
9	무지개마을 KCC아파트	3개동/299세대	군포시 당동로 21번길	2015-05-04
10	삼성마을4단지	8개동/488세대	군포시 삼성로 31	2016-05-21

#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군포 출신 김인엽

독특한 그림체, 흑백의 강렬한 인상, 투박하지만 가볍지 않고, 세련되지 않지만 정제 모를 울림이 있는 그림. 김인엽의 그림은 그런 느낌이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관심과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솔직담백함. 그의 그림은 마치 그의 고백과도 같다.

글 김은 사진 김오봉



### 산본에서 태어나 만화를 그린다

인터뷰를 위해 그가 직접 선택한 흥대 근처의 카페에 도착했다. 인터뷰가 중간쯤 흘렀을 때야 비로소 그가 이곳을 지목한 이유가 이해됐다. 카페는 묘하게 그의 분위기를 닮아 있었다. 콘크리트 가동과 배선들이 그대로 드러난 내부 인테리어는 예쁘게 꾸미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다. 마치 그 자신처럼, 그의 생각처럼, 그리고 그의 작품들처럼.

자기 생각과 감정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워트 있게 표현하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인엽 작가. 그가 SNS에 올리는 4컷짜리 짧은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신의 분신이다. 만화 속 화자이기도 한 김인엽은 군포시 산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칭 '산본 1세대'이다. 그는 단순 명료한 그림에 적나라한 풍자와 재치로 또래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그는 중앙대 경제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년

에 불현듯 깨달음(?)을 얻고 자퇴 후 이듬해 지금의 흥대 시각디자인학과로 입학했다. 하고 싶은 걸 자유



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인엽 작가.

“사실 입시 미술을 배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될 미래의 내 모습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전했죠.”

학교에 다니면서도 전공인 디자인보다 오히려 만화 그리기에 더욱 몰두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만화를 좋아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르가 만화라고 생각해서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5권의 만화책을 발간했다. 그 책이 바로 '신도시'다.

“산본신도시에서 태어나 죽 거기서만 자랐어요, '신도시'라는 게 말 그대로 '새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모든 것이 처음이자 시작인 셈이죠. 산본이 가진 문화나 역사적 뿌리는 아직 열지만 그렇기에 시작하는 모든 것이 첫출발이란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말처럼 '신도시'는 자신의 자화상이자 일기와 다름없다. 혼자 책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종이 매체를 사랑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의 소유자다.

“책을 내기 위해 공장 일을 하면서 지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냥 순수하게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 하고 싶은 걸 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 법

산본이라는 공간은 김인엽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 질문에 그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산본 그 자체가 저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안에 저의 모든 기억과 추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친구, 첫사랑, 학창시절 동등... 지금의 나를 만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쌓이고 추억이 굳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의 생각과 때로는 신념까지도 형성케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산본은 김인엽에게 단순하게 지리적인 고향, 장소와는 사뭇 다른 가치를 품고 있는 곳이다.

그가 만화작업을 할 때 즐겨 사용하는 검정 플러스펜은 군대 있을 때부터 써온 작업 도구다. 군대에서 구하기 쉬워서 쓰기 시작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지만 지금은 만화를 그리기 위해 이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손에 익었다.

'신도시'라는 작품을 통해 그는 20대 청년들의 절망, 슬픔, 고뇌 등을 주로 다룬다. 미숙하지만 나름 삶에 대해 진지한 나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작품의 화자인 나는 곧 김인엽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그는 말한다. “내가 겪은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인엽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해서 보다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목표라는 김인엽 작가는 만화 이외에도 음악에 관심이 많아 핵오밴드 등 인디밴드들의 앨범 커버 디자인 등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활동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다들 어찌지 않은 생각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든 산본이라는 출신지를 밝힐 생각이다. 군포 - 더 정확히는 산본 - 출신의 젊은 예술가로서 김인엽이 꾸는 꿈은 동시진행형이자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작업을 펼쳐갈 그의 앞날이 무척 기대된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자기의 일을 충분히 만족하며 즐기는 그는 분명 승자임이 확실해 보인다.

## 2016 거리로 나온 예술 거리에서 만나는 문화 힐링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군포 거리에서는 한바탕 문화예술 축제가 펼쳐진다. 멋들어진 예술화관 대극장도, 휘황찬란한 조명도 아니지만,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잠시나마 웃고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시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술제인 2016 '거리로 나온 예술'의 현장이다.

글 김은사진 주효상



### 관객과 소통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금요일 오후 6시, 군포역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음향 상태를 확인하고, 정제 모를 도구들을 옮기 모습을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제야 현수막에 쓰인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글씨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다.

군포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6 거리로 나온 예술은 시민들이 자주 찾거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간단한 소규모 거리공연을 진행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쉽게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에게는 더욱 편안하고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재능 있는 아마추어 공연예술인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사업이다.

올해 군포시의 '거리로 나온 예술'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2팀이 각 30분씩 공연을 선보인다. 금요일에는 군포역전시장, 토요일과 수요일에는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공연의 첫 순서는 'JT마술단'이 스타트를 끊었다. 로프마술, 공중부양, 카드마술 등이 이어지는 동안 어느새 무대 앞에 놓인 간이의자는 시민들로 꽂 들어 찼고, 자리에 앉지 못한 시민들은 뒤에 서서 까치발로 공연을 지켜본다. 마술공연이니만큼 특히 아이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마술사는 그중 한 아이를 자신의 조수로 초대해 함께 마술을 펼치며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얻었다. 비록 TV에서 보던 블록버스터급의 눈부신 마술공연은 아니지만, 30분 동안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무대였다.

### 내 삶의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마술공연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다음 무대에 오른 'YJP 댄스스포츠' 공연팀은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화려한 색조화장과 조금은 과감한 의상을 입은 댄서들이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관객석은 술렁였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스피커에서 터질 듯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댄서들은 리듬에 맞춰 화려한 퍼포먼스를 시작한다. 지르박, 차차차 등 몇 차례 댄스 폭풍이 지나가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공연팀이 군포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골라 보는 재미, 이것이 '거리로 나온 예술'의 매력 중 하나이다.

외국과 달리 길거리 공연이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은 아직 사람들에게 생소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오가던 길에 발길을 멈추고 잠시나마 즐길 수 있기에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은 색다른 즐거움이자 피로에 지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 충전이 되고 있다.

공연 활동비를 지원받기는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공연이기에 무대에서는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이다. 순수한 열정을 갖고 시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공연팀들이 있기에 주말 오후를 문화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술이란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내 삶의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임을 2016 거리로 나온 예술'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보자.

### 2016 거리로 나온 예술' 7월 공연 일정

날짜	장소	공연팀	분야	시간
1(금)	군포역전시장	권정미무용단	춤	18:00~18:30
		뮤직스페이스컴퍼니	음악	18:30~19:00
2(토)	산본로데오거리	BCP	음악	15:00~15:30
		정직한 멜로디	음악	15:30~16:00
8(금)	군포역전시장	벨리엔즈 공연단	춤	18:00~18:30
		산울림민속예술단	음악	18:30~19:00
9(토)	산본로데오거리	Soen'ear	음악	15:00~15:30
		예향하모니카	음악	15:30~16:00
15(금)	군포역전시장	루스토리노래이야기	음악	18:00~18:30
		거리의 인형극소	다원	18:30~19:00
16(토)	산본로데오거리	소리향	음악	15:00~15:30
		플러핏(송형준)	음악	15:30~16:00

날짜	장소	공연팀	분야	시간
22(금)	군포역전시장	경기소리연구회	음악	18:00~18:30
		RANG(아이람)	음악	18:30~19:00
23(토)	산본로데오거리	군포 플루트 앙상블	음악	15:00~15:30
		그린힐 피커즈	음악	15:30~16:00
27(수)	산본로데오거리	보이시	음악	18:00~18:30
		권정미무용단	춤	18:30~19:00
29(금)	군포역전시장	디어메직	다원	18:00~18:30
		풍물쟁이 아나	음악	18:30~19:00
30(토)	산본로데오거리	소라넷 앙상블	음악	15:00~15:30
		정직한 멜로디	음악	15:30~16:00



7월부터 4개월여간 휴관  
자료실 확대, 군포역사관 조성 등

## 군포시중앙도서관의 변신은 무죄!

군포시중앙도서관이 어린이와 가족이 더 많이 찾는 도서관, 더 많은 도서를 더 편히 볼 수 있는 도서관,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휴관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변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이다.

글 편집실

군포시는 '중앙도서관 증축 및 자료실 재배치' 공사를 7월 1일부터 시작해 11월 10일까지 추진(공사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4개월여 동안 중앙도서관의 전면 휴관을 시행한다.

휴관 기간 동안 시는 중앙도서관 1층의 어린이가족실을 확장하고, 2층 전체를 종합자료실로 꾸미며, 3층의 인문학자료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층의 인문학자료실은 3층으로, 문화교실과 독서토론폰방은 4층으

로 재배치된다. 또 시는 4층에 도시의 형성과 발전 흐름을 알 수 있는 군포역사관과 참고자료실을 신설하고, 휴게실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 독서문화와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을 휴관 기간에 무료 개방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이동도서관 및 무인반납기 등은 기존대로 운영해 도서 대출·반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영환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기

본 기능을 강화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앙도서관을 바꿀 것"이라며 "안전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중앙도서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도서관 390-8861, 8863  
www.gunpodlib.go.kr



### 군포시중앙도서관, 이렇게 변신합니다!

층별	현행	재배치(안)
1층	어린이가족실 및 다용도실	어린이가족실로 대폭 확대 개편
2층	종합자료실, 인문학자료실, 문화교실 1,2 / 독서토론폰방	종합자료실로 전체 개편
3층	열람실(독서실), 노트북실 1,2,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인문학자료실로 전체 개편
4층	열람실(독서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정기간행물실 및 참고자료실 등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군포역사관)

## 군포시 도서관의 7월 추천 도서

01

〈아동〉  
행복을 나르는 버스



할머니와 손자 시제이가 버스를 타고 마지막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의 이야기. 주변의 이웃과 사물의 틈에서 숨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책이다.

02

〈청소년〉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미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은 물론 미술에 담긴 역사, 정치, 경제, 예술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또한 깊이 있게 다룬 책

03

〈성인〉  
삶의 끝에서



영어교사인 데이비드 메나세는 2006년 이명 때문에 찾은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과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암이란 고난에 맞서 짧은 생을 뜨겁게 마무리한 메나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더 많은 추천도서는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dli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달의 도서관 행사

가을 책 잔치 여름부터 준비  
책나라군포, 2016 독서대전  
9월 2일부터 3일간 개최

군포시는 올해 가을 개최할 '2016 책나라군포 독서대전'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기에 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산본로데오거리와 중앙공원에서 '2016 책나라군포 독서대전'을 개최하기로 확정 후 6월 초부터 사전 준비와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시는 조만간 지역 내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독서대전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 컨설팅을 받아 가을 책 잔치의 양적·질적 수준을 모두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독서대전이 책을 테마로 한 대규모 독서문화·평생학습 축제로 진행되도록 공연, 학술·토론, 전시·체험, 거리 책방과 플라마켓 등의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편성할 예정이다.  
책읽는정책과 390-0903

### 2016 여름방학특강 참여자 모집

산본도서관이 2016 여름방학 특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기간 7월 5일 오전 9시 ~ 7월 11일 오후 6시
- 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행사 신청(정원 초과시 추첨)
- 추첨 7월 12일 오후 2시, 추첨 프로그램 이용
- 발표 7월 12일 오후 5시, 홈페이지 공지 및 당첨자 문자 발송
- 수강료 무료
- 문의 산본도서관 390-8842

### 2016 여름방학

#### 독서문화프로그램참가자 모집

부곡도서관이 2016 여름방학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기간 7월 5일 오전 10시 ~ 7월 8일 오후 6시
- 대상 주민등록상 군포시민
- 신청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 (www.gunpodlib.or.kr) 선착순 접수 - 1인 1강좌만 신청 가능
- 발표 7월 12일 오후 1시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
- 수강료 무료(교재비 및 재료비 수강자 본인 부담)
- 장소 군포부곡도서관 3층문화강좌실
- 문의 부곡도서관 390-4081

# 체험 공연 '무대는 내 친구' 인기

1,200여명이 관람해 인기몰이 중... 9~10월 재공연



(재)군포문화재단이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한 체험형 공연 프로그램 '무대는 내 친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대는 내 친구'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며, 창작공연 '꿈꾸는 물고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무대시설을 직접 체험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군포문화재단의 '무대는 내 친구'는 공연기획부서가 아닌 무대시설부서에서 기획, 지역예술인들과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 사업으로 보다 전문적인 무대 체험을 통한 예술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이야기 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무대시설의 회전 및 승하강, 조명 장치의 변화 등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구성돼 참여한 어린이들과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6월 1차 공연에서 총 1천200여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포문화재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어나가고, 무대를 체험하며 살아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대는 내 친구 2차 및 3차 공연은 오는 9월과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군포시문화예술회관 390-3517

www.gunpoart.net

### 여성회관 실버가요(7~12월) 프로그램

- 내용 관내 거주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영위를 위한 노래교실 강좌 운영
- 기간 7월 5일~12월 16일(24주)
- 장소 여성회관 2층 대회의실
- 대상 60세 이상 여성
- 수강료 15,000원(월2,500원)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문의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 가족이 함께 배우는 놀이학교

#### - 이따랑 함께하는 캠핑요리교실

수요일은 가족의 날! 일주일에 하루는 TV가 아닌 가족과 함께 배우고 놀고 소통하는 시간. 특별하고 소중한 가족문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 모두 참여해주세요.

- 일시 7월 6일~7월 27일 오후 7시~9시
- 참가비 무료
- 정원 10가족
- 내용 닭봉바베큐, 매운갈비찜, 토디아 핫도그, 채소 떡꼬치
- 문의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0

### 방학은 예술로 놀자

방학을 이용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예술가와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자기들만의 상상 속 세계를 만들어 보자.

### 나도 성악가 '성악&보컬'

- 일시 7월 27일~8월 17일  
오전 11시10분~오후 12시10분
- 참가비 20,000원
- 정원 초등(15명)
- 내용 기본적인발성, 발음, 자세, 음정, 박자교정 등 재미있게 노래 부르기 등
- 문의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0

### 초등예술워크숍 '이상한놀이터-예술가의 작업실'

- 일시 8월 3일 오후 1시~5시
- 참가비 20,000원
- 정원 초등(40명) 그룹별 활동
- 내용 아트웍놀이, 그룹별 작품전시, 발표, 작품공유, 전문분야 4명의 예술가와 함께 소그룹으로 활동
- 문의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0

### 군포시 하계 청소년 영어캠프

군포시와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 군포시 하계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간 8월 1일~12일  
- 1기) 8월 1일(월)~5일(금)(4박5일)  
- 2기) 8월 8일(월)~12일(금)(4박5일)
- 장소 군포시청소년수련원(충남 청양군 소재)
- 대상 군포시 관내 초등 3~6학년(군포시민)
- 모집인원 86명(43명\*2기) ※참가신청 후 추첨
- 접수기간 7월 11일~20일
- 참가비 100,000원(1인)
- 프로그램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체험활동 등
- 문의 군포시청소년수련원 390-1430

###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하계 성수기

#### 군포시민 우선 예약제

- 기간 7월~8월
- 장소 군포시청소년수련원(충남 청양군 소재)
- 대상 군포시민 누구나
- 내용 군포시민 우선 예약제, 문화예술공연, 체험활동, 야외물놀이장
- 문의 군포시청소년수련원 390-1430, 1432

## 군포문화재단 7월 G시네마 & 공연



7월 4일(월)/11일(월)  
프랑스 영화처럼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입장료 1,000원



7월 7일(목)  
바이센테니얼 맨  
장소 여성회관 2층 대회의실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입장료 무료



7월 18일(월)/25일(월)  
올보 권투부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등급 전체 관람가  
입장료 1,000원



7월 23일(토) 19:00  
ALL THAT MOZART  
장소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등급 8세 이상  
입장료 일반석(전석) 20,000원

##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

박지영 | 오금동

아침에 조카들 주려고 산 여름용 티셔츠를 갖다 주기 위해 잠깐 들르겠다고 전화를 가니 그러하여 일론 오란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언니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에서 가적 없어 전화를 가니 도서관에 갔다 오는 걸 타면서 몇 분만 기다리란다.

그 말에 앞다면서 전화를 끊고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데 가방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언니가 보였다.

"날도 더운데 뭐 그렇게 급하게 도서관에 갔다 오느라 그래?" 하면서 언니가 메고 있던 가방을 보니 꽤 무거워 보여서 나도 모르게 "아께도 아프다면 서둘러 이렇게 많이 빌려와?" 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며 언니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가늘게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는 언니. 그러고는 주섬주섬 빌려온 책들을 꺼내는데 열칸다. 3주간 읽을 것이 어서 많이 빌려왔다고 하는데 가가 막았다. 목 디스크 때문에 한참 고생한 것을 잊고는 자한다 싶어 "아니 몇 권씩 빌려오면 될 것을..." 하며 혀를 툭툭 차면서 조카들 티셔츠를 주니 고맙다면서 점심 먹고 가란다.

점심이 준비되는 동안 언니가 빌려온 책들을 훑듯 살펴보았다. 무슨 책을 읽게끔 아침부터 도서관에 갔다 싶어 책을 한 권씩 들고는 왔다. 남이 읽는 책은 읽는 게 좋아? 안 가져와? 책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 하고 물으니, "지금은 재밌지" 하면서 과시 웃는다.

"책을 읽을 시간이 있어서 책을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어? 시간을 만들어 읽는 거지 읽다 보면 습관이 돼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기게 되어 있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을 마음 없는 거야." 하고 책상을 짚어 말하는 언니.

그 말에 "맞아. 시간은 다 쟁해야 책 읽으려고 마음약화. 하루에 30분을 못 낼까?" 하면서 웃으니 언니도 따라 웃으면서, "너희네는 도서관도 잘되어 있는데 책 좀 빌려다 읽어 정말로 하루에 30분 만이라도 그 좋은 도서관이 아깝지 않아?" 하는 말에 "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었다.

정말 그렇다. 우리 군포시에는 도서관이 잘되어 있어서 책 빌려 읽게 참 좋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심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언니 말을 잘 들어 당장에 도서관으로 직행해야겠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

이라는 언니 말을 명심하면서 군포시의 자랑인 도서관 애용자로 거듭나야겠다. 시간에 쫓겨 살면서도 항상 책을 가까이하는 우리 언니처럼 말이다.



## 물길



장진영 | 오금동

정체모를 검붉게 젖은 미세 건더기 물과 친구 되어 시시 때때 흥수 떼처럼 물러온다.

필터. 연수기로 막아보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붉은 무리 하나 되어 감당 할 수 없다. 역부족이다.

20여년이란 세월의 흔적 알려주듯 끈질기게 나온다.

오랫동안 고된 물길이 되어준 쇠길 불평도 없는 고마운 녀석들이다. 오랜 기간 흘러보낸 탓에 혈관 피막지 쌓이듯 상처투성이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설치한 식 흐름길도 정년퇴직을 맞이했다.

새 물 길에 되어줄 스텐 흐름길 생명수 맑은 물 팔~ 팔 기다림~

반갑지 않은 붉은 무리들 정신건강 음 건강 빨간 신호등

3~4 개월이란 인내가 필요하다. 감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 달팽이, 매미, 종이비행기, 조각 피자, 찻술, 은행잎, 사탕 수수께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OOO생태공원'은 7월 개장한다. ▣ 2~3면, 8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 표기 후 사진 촬영해 7월 21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페이스북 공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군포소식>이 시민 원고를 기다립니다.

제출방법 이메일 gunpo-city@nate.com, 매월 접수  
원고분량 150자 이상, 900자 이내(글자 10포인트 기준)  
문의 군포시청 홍보실 390-0663

※ 원고가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함 <input type="checkbox"/>
---------------------------	---	--

# 국악의 아름다운 향을 소리로 전하다

## 국악동호회 '소리향'

어느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말로 꽃꽃이를 예찬했다. 수수한 모습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아 쉽게 지나치지만, 알고 보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것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것들이 태반이다. 우리 소리 '국악'도 마찬가지다. 너무 익숙하기에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지고, TV에서나 간혹 만나볼 수 있는 국악. 군포시 국악동호회 '소리향'은 그런 국악의 멋과 향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다.

글 김은 사진주효상



### 경기민요에 중독된 사람들

경기민요(京畿民謠),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된 민속음악. 서울과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던 민요로, 맑고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창부타령·태평가·방아타령·군밤타령 등이 대표적인 우리의 소리.

경기민요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돼 있다. 하지만 국악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 예술이라는 것이 어디 글 몇 줄로 규정될까. 그럼에도 예전에 비해 국악에 대한 관심과 들어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동호회 '소리향'은 국악, 그중에서 경기민요의 멋과 향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곳이다.

동호회가 결성된 지는 10여년, 8명의 회원이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씩 만나 연습을 한다. 사실 '소리향'을 완전한 아마추어 모임으로 보긴 힘들다. 회원마다 오랜 시간 동안 소리를 연마해 왔거나,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등 적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이들이기 때문이다.

"저희 회원들은 모두 군포시국악협회 민요분과에 속해 있습니다. 동료로 만나 함께 실력을 쌓아가기에 스승과 제자 관계로 사사(師事)하는 곳과는 다르죠."

이종복 단장은 '소리향'의 시작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한다. 그저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즐기는 곳, 그리고 시민들에게 국악의 참맛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곳. 그래서 단장이라는 직책 역시 임기에 맞춰 서로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창단 단원인 조점식 씨는 '소리향'의 회원들이 전부 다재다능해서 경기민요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무대나 상황에 맞게 가야금이나 난타도 잘 다룬다고 한다.

"소리향은 경기민요를 주로 다루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야금이나 난타 등도 같이 배우고 공연도 하죠. 1인 3~4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 더 자주무대에서 시민들 만나고파

군포시국악협회에서 마련하는 무대, 거리예술제, 군포시 관내 요양센터 등을 찾아 공연하는 '소리향'은 공연도 공연이지만 국악이 없으면 삶의 활력을 찾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국악에 푹 빠진 이들이다. 공연 때마다 악기를 옮겨야 하고, 무대에 맞는 한복을 준비하고 화장도 정성껏 하느라 손이 제법 가지만, 그

모든 수고를 잊을 수 있을 만큼 국악이 주는 매력과 희열은 남다르다.

"남편이 곧 든든한 후원자이자 매니저"라고 말하는 정영화 씨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직접 일일이 챙겨주며 신경을 써준다고 한다. 국악을 통해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아내의 모습이 보기 좋아 남편 역시 적극적으로 외조를 해주는 것. 다른 회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자녀들이 공연장을 찾아와 사진을 찍어주고 용원을 보내는 등 '소리향' 회원들 모두 가족의 열렬한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7~8분의 공연을 위해 4~5곡의 경기민요 매들리를 구성하고 합을 맞추는 사이 국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소리향' 회원들. 사람이 흥이 나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의욕이 샘솟기에 공연을 펼치는 동안 관객분들이 소리를 따라 부르거나 흥겹게 춤을 추실 때 더욱 큰 힘을 얻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번은 몸이 불편해 잘 일어지지 못하던 어르신께서 자신들의 민요 공연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것을 보며 이것이 음악의 힘이자 국악의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회원들은 마지막으로 하나같이 같은 소망을 전했다.

"자주 접해야 그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국악도 그런 거 같아요. 시민들이 국악의 멋과 흥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역시 더 노력할 겁니다"

생활민요동호회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의 생활민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간'(군포의 생활민요예술 동호회 함께 느껴요!)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시민은 군포문화재단(031-390-3071~3)에 문의하면 된다.

### 장학금이 또 다른 장학금을 부른다

군포시는 최근 기본 좋은 돈을 연이어 받았다. 시와 군포사랑장학회에 의하면 지난 6월 1일 지역 독지가 2명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했다.

군포시 새마을회 진흥회 이사가 200만원을, 군포시 사랑장학회 박근모 상임이사가 100만원을 쾌척하며 청소년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탠 것이다. 군포시 사랑장학회는 지난 2007년 시 출연금 등을 기본 자산으로 설립된 이후 매년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시민과 지역단체 등이 선의로 장학금을 출연, 현재까지 조성된 군포시 사랑장학기금은 총 119억2천100만원에 달한다.

책읽는정책과 399-0785

###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세금 고민 때문에 입도 손에 안 잡히고, 골치 아픈 세금 문제로 어디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이제 군포시 마을세무사를 찾으시면 된다.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서비스로, 올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종 세금 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고,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행정지치부와 군포시 홈페이지,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가까이 있는 마을 세무사를 찾을 수 있다.

세정과 390-0182

### '아미스 카페'가 더 가까워지다

군포시청 민원봉사실 내에서 운영되던 자활사업장 '아미스 카페(Amis Cafe)'가 개점 5주년을 앞두고 시민과 더 가까워졌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복잡하던 민원실 내부로 들어가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아미스 카페의 입구이자 매장 방향을 시민이 더 빠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 외부로 돌린 것이다.

아미스 카페는 시가 지난 2011년 6월 말 조성에 군포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자활사업장으로 경제적 자립 자활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를 찾는 민원인을 비롯해 공무원들에게는 싼 가격에 좋은 음료를 판매하는 복합 복지 공간이다.

사회복지과 390-0657



## 여름 계절성 증후군 냉방병

'오늘날 감기는 가도 안 걸린다'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각종 냉방기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여름철 감기에 걸리는 것이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바로 냉방병 때문이다.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냉방병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계절성 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 냉방병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냉방병의 증상은 두통,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과 같은 감기 증세이다. 몸살에 걸렸을 때처럼 팔다리, 어깨가 무겁고, 허리, 무릎, 발목 등 관절이 쉬시고 아픈 경우도 있다. 하지만 냉방병에 걸렸다고 감기나 몸살 증세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소화불량, 식욕감퇴, 설사, 피곤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여성의 경우 생리 불순을 겪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한다.

### 냉방병 예방법은?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 차를 5~6℃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실내 온도를 22~26℃ 사이로 유지하고 에어컨을 1시간 가동한 뒤에는 30분 정도는 꺼두는 것이 좋다. 또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고, 2주에 한 번은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하도록 한다. 실내에서 한기를 느낄 때는 긴 옷을 입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냉방병 원인은?

지나친 실내·외 온도 차는 냉방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은 날이 더워지면서 1~2주 정도 외부 온도에 몸을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과도한 냉방으로 실

### 냉방병 증상은?

내 기온을 낮게 유지하면 우리 몸은 실외의 높은 기온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신경계가 지치게 되면 냉방병에 걸리게 된다. 게다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서 낮아진 실내 습도 때문에 각종 냉방병 증상이 나타난다.

### 고혈압 건강교실

기간 7월 6일~7월 27일(매주 수요일)  
 시간 오전 10시~11시(1시간)  
 대상 지역주민 약 30명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소교육실(운동은 대교육실)  
 방법 선착순, 전화 신청  
 기타 4주 교육수료 후 8월 고혈압 영양요리교실 신청 시 우선 접수 가능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51

### 당뇨병 건강교실

기간 7월 1일~7월 22일(매주 금요일)  
 시간 오전 10시~11시(1시간)  
 대상 지역주민 약 30명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대교육실  
 방법 선착순, 전화 신청  
 기타 4주 교육수료 후 8월 고혈압 영양요리교실 신청 시 우선 접수 가능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51

###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기간 12월 31일까지  
 시간 오후 1시~2시(1시간)  
 대상 군포시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무료)  
 장소 산본보건지소 2층 구강보건실  
 내용 스케일링, 불소도포, 칫솔질 및 구강관리교육  
 방법 예약제 운영(전화 및 방문예약)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27

### 맞춤형 건강 원스톱 서비스 평생건강실

대상 만 30~64세 군포시민 및 군포시 기업체 근로자  
 내용 신장 및 체중 측정,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  
 시간 평일 오전 9시~12시  
 장소 산본보건지소 1층 평생건강실  
 신청 사전 전화예약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69, 8979

###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초등학교 학생  
 내용 치아우식증이 발생하기 전의 제1, 제2대구치(8개)  
 비용 무료  
 방법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시술 사전예약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27, 8968

◆ 사정에 따라 운영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병을 물리치는 따뜻한 보양식 흑미영양삼계탕

여름철 냉방병으로 몸이 허하다고 느껴지는 이가 있다면, 기온을 북돋워 주는 음식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 매년 똑같은 스타일의 삼계탕이 지겹다면 이제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흑미영양삼계탕으로 몸을 보양하자.



재료 - 찰흑미 200g, 영계 1마리, 인삼 1뿌리, 황기 2뿌리, 대추 4개, 밤 3개, 마늘 5쪽, 생강 1톨, 대파 1대, 청주 2큰술, 물 2리터, 다진파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 조리방법

- ①찰흑미는 깨끗이 씻어 찬물에 3시간 이상 불려주고, 닭은 깨끗이 씻어 내장과 기름 덩이를 제거한다.
- ②영계 뱃속에 불려둔 흑미, 통마늘, 대추, 밤을 함께 빠져나오지 않도록 잘 넣어준다.
- ③닭다리 안쪽으로 칼집을 내어 다리를 엇갈리게 꼬아서 고정한다.
- ④큰 냄비에 닭을 넣고 물 2L를 부은 후 인삼, 황기, 대추 2개, 마늘 3개, 대파, 생강, 청주를 넣고 끓인다.
- ⑤재료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40분 정도 푹 삶아 익힌다.
- ⑥다진 파, 후추, 소금을 넣어 간을 한다.
- ⑦그곳에 예쁘게 담아내면 '흑미영양삼계탕'이 완성된다.

산본보건지소 390-8924